

# 지역정가로 번진 與 탈당사태

## 이젠 實利다

〈8〉 '운조루 뒤주' 정신 실천하자

### 신당과 의원들 당원 간담회 여론 조성 “통합신당·탈당 함께”...지각 변동 예고

열린우리당 광주·전남지역 통합신당과 의원들이 핵심 당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통합신당 창당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탈당 결정에 대한 긍정적 여론 조성에 나서고 있다. 정계개편 과정에서 흐트러질 수 있는 지역구 조직 다지기에 나선 것이다.

특히, 열린우리당 기초의원들과 시장·군수 등 기초단체장들도 통합신당 창당이 가시화되고 지역구 의원이 탈당한다면 행동을 함께한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대규모 탈당 러시와 함께 지역 정가의 지각 변동도 예고되고 있다.

22일 열린우리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유선호 의원(영암·장흥)은 오는 24일 전남지역 열린우리당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핵심 당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통합신당 창당의 불가피성과 함께 탈당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선호 의원은 이날 “정계개편 방향과 관련한 여당 소속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기회가 된다면 통합신당 창당 및 탈당 등과 관련한 개인적인 행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탈당 문제와 관련, “오는

29일 중앙위원회의에서 당헌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며 “이 경우 탈당이 나서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신당파의 대표 주자인 양형일 의원(광주 동)도 지난 20일 지역 기초의원 및 핵심 당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통합신당 창당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탈당 등을 포함한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핵심 당원은 “이날 양 의원이 통합신당 창당을 위해서 탈당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참석자 대부분이 동의했다”며 “지역 여론이 통합신당 창당을 요구하고 있는만큼 조만간 동구지역 열린우리당 조직도 통합신당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지역 선도탈당파로 분류되는 우윤근 의원(광양·구례)은 여수 엑스포 유치 활동을 위해 해외에 머무르면서도 핵심 측근들을 지역구에 보내 핵심 당원들과의 접촉 등을 통해 통합신당 창당 및 탈당과 관련한 우호

적 여론 조성에 나서고 있다.

우윤근 의원 핵심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통합신당 창당과 관련한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의원의 탈당 문제 등에 대해서도 당원들의 적극적인 이해를 구하고 있다”며 “우 의원이 귀국하면 이 같은 활동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탈당 의사를 밝힌 염동연 의원(광주 서)도 여당 소속 기초의원 및 핵심 당원들에게 탈당 의사를 밝혔으며 행동을 함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탈당 선언을 하고 있다. 조선인 입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된 여당 내 정계 개편 논란의 와중에서 탈당하는 첫 현역의원이 됐다. /연합뉴스

## 퍼가면 차는 ‘나눔의 쌀’ 빈부 갈등 치유 ‘시발점’

영조 52년(1776년), 낙안군수 류이주(柳爾胄)는 구례군 토지인 오미리의 운조루(雲鳥樓)에 눈길을 끄는 뒤주를 만들었다. 이 뒤주의 밑부분에는 가로 5cm·세로 10cm의 자그마한 직사각형 구멍이 뚫려 있는데, 구멍을 여닫는 마개에 ‘타인능해’(他人能解)라는 글을 새겨 놓았다. ‘누구든 마음대로 쌀을 퍼갈 수 있다’는 의미다.

정확히 230년이 지난 2006년 1월 광주시 서구 금호 1동사무소에 ‘운조루의 뒤주’가 다시 등장했다. 아무때나 거리낌없이 쌀을 퍼갈 수 있는 ‘사람의 쌀 뒤주’가 설치된 것. ‘가진자가 ‘덜 가진자’에게 ‘정’을 나누주는 공간이다.

운조루의 뒤주 정신은 이처럼 받는 이의 체면까지 생각하며 절대 생색을 내지 않으려는 마음이다. 가진자와 못가진 자로 갈려 갈등과 적대시를 일삼던 우리 사회의 상처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치유할 수 있게 하는 정신이자 실천운동이다.

### 작년 금호1동사무소 첫 등장

‘사람의 쌀 뒤주’에서는 하루 평균 20여명이 30kg의 쌀을 퍼가고 있다. 뒤주에서 쌀을 퍼가는 독거노인은 공무원들의 손을 붙잡고 “옛날 보릿고개 생각이 난다”며 고마워한다. 힘들게 키웠던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이들은 뒤주 앞에 있는 “미안해 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따뜻한 밥을 지어 드세요”라는 안내문에 눈시울을 붉히고 만다.

퍼간 사람이 있으면 주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다. 진흥기업 15포대(1포대 20kg)를 비롯 ▲LG 에어컨 특관(10포대) ▲OK자동차 운전학원(2포대) ▲송죽고을(3포대) ▲시영1단지 마트(1포대) ▲서광병원(20

만원) ▲성심치과(10만원) ▲아모레무등영업소(7만원) ▲세브란스약국(5만원) ▲금호이비인후과(5만원) ▲벤엘교회(2포대) ▲광주지방검찰청 김제식 차장검사(5포대) 등이 매달 뒤주를 채운다. 이름을 끝내 밝히지 않는 후원자도 있다. 한 의명의 후원자는 매달 10일 동사무소에 35만원을 보낸다. 쌀 10포대를 쌀 수 있는 돈이다. 1년 동안 한 하루도 늦은 적이 없다.

### 광주시내 5개 동사무소로 확대

김제식 광주지검 차장 검사는 “광주일보 지면을 통해 ‘사람의 쌀 뒤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침 광주 지검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환경 월어원에서 쌀을 사 뒤주에 전달하기 시작했다”면서 “나눔의 정신이 강한 광주에서 시작된 이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받는 이’의 자존심을 고려한 이 운동이 눈길을 끌자, 다른 동사무소들도 동참하기 시작했다. 현재 광주 시내에는 남구 주월동·백운 2동·월산 5동, 서구 금호 1동·화정 3동 등 모두 5개 동사무소에 뒤주가 있다. ‘사람의 쌀 뒤주’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광주시민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나눔의 정신’을 새삼 일깨웠기 때문이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빈부격차’라는 양극화를 풀기 위해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가 유일한 해결책이라 데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1월 현재 우리나라의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는 0.31을 기록했다. 빈부격차와 계층 간 소득 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0.4가 넘으면 불평등이 매우 심하다는 의미다. /임주형기자 jhim@kwangju.co.kr



광주시 남구 월산 5동 사무소에 설치돼 있는 ‘사람의 쌀 뒤주’에 한 주민이 쌀을 채우고 있다. ‘나눔의 정신’을 되살린 ‘사람의 쌀 뒤주’는 광주시내 동사무소로 확산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일보 사진진>

## 단계적 탈당이나 집단 탈당이나

### 與 분당 세가지 시나리오...사수파 逆탈당론도

열린우리당이 분당 위기에 내몰리면서 탈당 방식과 수순을 둘러싸고 이런 저런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당내에서는 지난 주말을 고비로 집단탈당을 통한 신당창당 추진이 대체로 굳어지는 분위기이지만 정작 이를 실행에 옮기는 ‘역선편안’은 각양각색이다. 일부가 선도탈당하면서 후속 탈당 흐름을 이끌어내는 ‘단계적 탈당론’에서부터 큰 덩치로 함께 움직이는 ‘집단탈당론’, 당 사수파가 먼저 당을 뛰쳐나가는 ‘역(逆) 탈당론’까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거론되고 있다.

◇단계적 탈당론=일부 강경파가 먼저치고 나가고 뒤를 이어 탈당행렬이 이어지는 이른바 연쇄효과를 상정한 접근이다. 선도탈당파는 ‘제3지대’에 머물며 외부와의 연대를 모색하면서 통합신당

창당의 ‘산파역’을 맡게 된다. 이미 호남출신의 염동연 의원과 개혁성향의 천재배 의원이 탈당을 적극 시사한데다 임종인 의원이 22일 전격 탈당을 선언함으로써 현단계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보인다.

◇집단탈당론=신당과 소속 의원들이 대거 움직이는 시나리오다. 당장 선출될 움직이기 보다는 29일 중앙위원회의 등 일정한 명분과 시점을 노려 적어도 70~80명 이상이 대거 탈당해 신당 창당을 주도해나가는 그림이다.

◇역발상 탈당론 또는 ‘분열없는 신당론’=예정대로 2.14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분열없는 신당’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이미 양측 사이에 감정의 골이 너무 깊게 패어 있어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임동욱기자 tuim@

kwangju.co.kr

22일 열린우리당 탈당을 전격 선언한 임종인(51) 의원은 원칙론적 개혁주의자로 통한다. 경기 안산시 상록읍이 지역구인 초선의원.

국가보안법 폐지, 이라크파병 반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반대 등 보혁이 맞닿는 주요 정책에 있어서 진보 진영의 입장을 일관되게 대변하는 원칙론을 고수하면서 타협론을 거부해 ‘독불장군’이라는 평을 들을 정도다. “선배들이 군기를 잡겠다고 하면 물어뜯겠다”는 이색 발언 등 술한 화제를 뿌린 인물. 1995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계에 복귀,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할 때 민주당에 잔류한 인사들이 결성한 국민통합추진회의(통추)가 꾸러지자 통추의 막내격으로서 정치활동에 참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경기 안산 지역구 초선 원칙론적 개혁주의자

### 與 ‘탈당 1호’ 임종인의원

아침, 저녁 하루 두번 우리 가족의 힘- 베콤씨

베콤씨에 함유된 비타민B12와 비타민C는 수송비타민으로서 체내에 축적되지 않습니다.

문의: 02-380-1188 (주말, 휴일 제외) | 부산: 051-462-4673 | 대구: 053-752-0615 | 광주: 062-382-4400 | 대전: 042-027-9933 | \*약국에 구매할 수 없습니다. (02-380-1188 www.becomm.com)